

## 기업하기 좋은 곳 장흥·곡성

### 광주 5개 자치구 경제활동 친화성 최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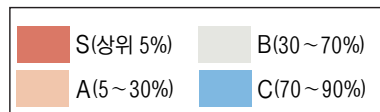
상의, 전국 6200개 기업 조사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인드가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은 전국 하위권에 속했으며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역시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3면>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규제 합리성과 행정시스템, 공무원 태도 등을 토대로 한 '기업 체감도'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가중합산한 '경제활동 친화성'을 놓고 평가한 결과, 장흥은 2개 지표 모두 최고인 S등급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곡성은 기업 체감도에서 S등급을 받았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기업 체감도에서 남구와 북구, 광산구가 A등급, 동구가 B등급, 서구가 C등급을 기록해 서구를 제외하고 평이한 반응을 이끌어 냈으나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동구와 북구, 광산구가 C등급, 서구와 남구가 D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목포와 영광, 무안, 진도, 완도 등 전남 서남권 지자체 역시 기업 체감도에서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사됐다.

2014년 경제활동친화성



이번 조사는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조사해 대상 지자체를 S(상위 5%)·A(5~30%)·B(30~70%)·C(70~90%)·D(95~100%)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은 기업 체감도 지표에서 78.0점으로 공동 1위를 했는데, 1위 비결은 '친절'이었다. 기업들은 공무원의 일처리와 태도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보면 광주에선 남구와 북구, 광산구의 공무원들이 비교적 기업에 대한 반응이 좋은 셈이다. 전남에선 장흥과 곡성이 가장 낮고, 장성과 담양, 구례, 광양, 강진도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광주 서구와 영광, 무안, 영암, 목포, 해남,

진도, 완도의 지방행정은 기업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지 못했다.

공장설립과 음식점 창업, 기업유치 지원, 다가구주택 신축,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5개 항목의 점수를 매겨 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의 경우 전국 1위는 논산(85.8점)이었다. 논산은 부단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최근 2년 사이 기업 8개사를 유치해 1000억원 대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에 반해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C등급 이하로, 기업환경 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에서는 장흥과 장성, 곡성, 구례, 함평, 무안, 나주, 화순, 진도, 해남, 완도, 여수 등이 비교적 점수가 높았으나 신안과 영광, 담양은 하위권이었다.

/임동욱기자exian@kwangju.co.kr

## '박지원 對 문재인' 양강구도

朴 출마 선언·文은 오늘 회견  
정세균·김부겸·김동철 불출마  
새정치 29·30일 대표 후보등록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문재인 의원이 내년 2·8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4면>

반면 잠재적 당권주자 '빅 3'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세균 의원과 비주류 진영의 다크호스로 꼽혀왔던 김부겸 전 의원은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8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 구도는 박지원·문재인 의원의 '양강 구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박지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

사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강한 야당, 당원이 원하는 통합 대표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6개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할당제 ▲청년 의무공천제 ▲공천심사위 폐지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시했다.

박지원·문재인 의원의 양강 구도를 위협할 다크호스로 거론돼온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치 생명을 걸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김동철 의원은 이날 "높은 현실의 벽을 절감한다"며 전격적으로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잠재적 당권 주자 '빅 3' 중 한 명이었던 정세균 의원은 지난 2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식 출마에 나선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는 박지원·문재인 의원과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의 이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내 영남의 유일한 3선인 조경태 의원 등 네 명이다.

여기에 추미애, 박영선 의원이 막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주선 의원은 29일 민집모(민주당집권유망한 모임) 소속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당권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9·30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과 1월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라진 에어 아시아 28일 오전 한국인 3명 등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다가 실종한 에어아시아 QZ8501편 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 /연합뉴스

## 여수 일가족 3명 탄 에어아시아機 실종

인니→싱가포르행 162명 탑승  
제일교회 부부 선교사·딸 포함

여수 출신 박성범(38) 선교사 가족 등 3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실종됐다.

에어아시아는 28일 성명을 내고 박씨 가족 등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출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QZ 8501편이 실종, 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기에는 박씨 가족을 포함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 등 162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의 저가 항공사로 서울과

인니발 싱가포르행 여객기 추락 추정



부산을 포함, 아시아 전역 약 100개 도시에 노선을 두고 있다.

해당 여객기는 에어버스 320-200 기종

으로 이날 현지시간 새벽 5시35분에 수라바야에서 출발, 8시30분에 싱가포르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7시24분(한국시각 8시24분)에 관제탑과 교신이 두절됐다. 교신단절 당시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영공인 자바해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해당 여객기가 벨리통섬에서 약 145km 떨어진 남위 03.22.46, 동경 108.50.07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 자카르타포스트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박 선교사는 여수제일교회 소속으로 부인 이경화(36) 선교사, 11개월된 딸 박유나양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2개월째 선교 활동을 하다 이날 에어아시아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선교사는 특히 캄보디아에서 6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다 3년여 전 한국으로 돌아와 여수 출신 부인과 결혼한 뒤 2개월 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선교 활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선교 활동 중 관광 비자(3개월) 연장을 위해 이날 싱가포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잠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2014 광일문학상 김현주씨 소설 '행간'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2014년 제10회 광주일보문학상(이하 광일문학상)에 소설가 김현주(53·사진) 씨의 '행간'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련 기사 17면>

광일문학상 심사를 맡은 고재중 시인, 채희운 소설가, 윤삼현 동화작가는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실에서 가진 심사에서 '행간'을 올해의 수상작으로 뽑았다.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길이 없는 길을 향하여'로 등단한 김작가는 1993년 계간지 '문학과 사회'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물속의 정원사' 등을 펴냈고,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일보 '행복한 책임기'에 서평을 게재함으로써 독자와 소통을 해왔다. 한편 광일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2015년 1월 중 신춘문에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공업 표준 연비 및 등급 \* GLA 200 CDI 2,143cc 1,500km, 7G-DCT 복합연비 16.2km/l (도시연비: 14.3km/l, 고속도로연비: 19.5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2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